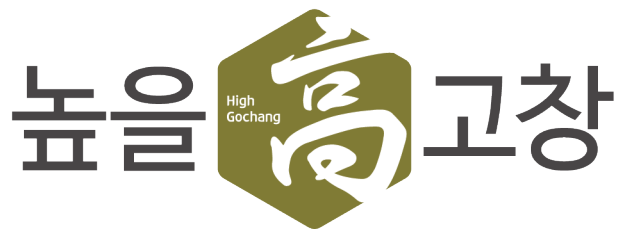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08
2021
제 473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고창갯벌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7월26일,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고창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고창농악, 고창판소리),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까지
유네스코 주요 인증 프로그램을 5개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고창군민과 함께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의 소중한 열매입니다"



심원면_대죽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창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년 7월31일)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전북 고창(고창갯벌)을 비롯해 충남 서천(서천갯벌), 전남 신안(신안갯벌), 보성·순천(보성·순천갯벌)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 이 중 고창군은 부안면, 해리면, 심원면의 갯벌이 등재. ‘고창갯벌’은 계절에 따라 펄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로 퇴적양상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갯벌.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쉼니어(Chenier,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되며 지형·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2000년12월)



고창읍 죽림리 일대의 442기의 고인돌과 도산리 고인돌 5기를 포함하여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분포. 숫자의 방대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 이른바 탁자식과 변형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등 각종 형식이 혼재되어 있어 고인돌의 발생과 전개 및 그 성격면에서 중요한 자료 제공.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기준 제3항(독특하거나 아주 오래된 것)을 적용,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

유네스코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2013년 5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주민소득 증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를 등재시키며 화제. 핵심구역은 고창갯벌, 고인돌유적지, 선운산, 운곡습지, 동림저수지가 포함됐고,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사구 등을 완충지대(265.54km². 40%)로, 기타 농경지와 주민 거주지역을 전이지역(314.70km². 46%)으로 설정.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농악
(2014년)



고창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면서도 영·무·장 농악의 정통을 이어. 영·무·장 농악은 영광, 무장(고창), 장성을 중심으로 발달된 농악으로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멋이 있고, 지역적인 특성상 간이 잘 맞는 농악으로 정평. 특히 개인놀이가 발달돼 머리에 고깔을 쓰고 가락에 맞춰 꾸리북(소고를 빠르게 감아치는) 동작을 멋지게 구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판소리
(2003년)



고창의 판소리는 19세기 후반 동리신재효 선생의 노력과 함께 판소리의 중심지로 떠올라. 조선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을 비롯한 김수영, 김창록, 김찬업, 김토산, 김성수, 김여란, 김소희 등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곳으로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로 자리매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중(2022년 4월 예정)
※고창 주요 지질명소(6개소) : 운곡습지, 병마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고창명사십리



‘담비·수달·삿’ 고창 운곡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잇따라 포착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운곡습지 센서 카메라에 담비와 수달, 삿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잇따라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담비가 먹이를 물고 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담비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남한 지역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담비의 출현은 운곡습지 생물다양성 측면과 생태계 안정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천연기념물 330호)과 삿(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멧토끼 등의 다양한 포유류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전체 면적 1,797km²(약 55만평)에 달하는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에는 식물 500여종과 곤충·동물 360여종이 서식한다.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생물종이 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19 예방 이렇게 해주세요!

3

에어컨 사용 시 충분한 환기와 함께

- ☑ 실내에 침방울 입자의 농축·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개방해야 맞통풍할 때 환기가 더욱 효과적

-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게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충분한 휴식과 함께

- ☑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신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 마스크를 벗고 휴식 시 다른 사람과 간격을 2m 이상(최소 1m) 충분히 확보

-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합니다.



고창군 18~49세, 8월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0부제 사전예약’

질병관리청과 고창군은 만 18~49세 성인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8월18일까지 10부제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18~49세는 오는 8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사용한다. 이를테면 사전예약을 시작하는 8월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만 예약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날짜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해야 예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전예약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주철 고창군코로나19백신추진단장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와 접종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며 “변동된 내용은 신속하게 안내해 접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고창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7월 30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본예산인 7,131억원보다 855억원이 증가한 7,98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7,763억원, 특별회계는 22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6% 증가했으며, 금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각종 재난재해 대비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최인규 의장은 “회기동안 전달한 조안과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민규 예결특위 위원장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15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에 조민규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차남준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 제출된 872억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은

위원 간 긴밀한 상호협조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과 불필요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고창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민규 위원장은 “고창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성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82회 임시회 의안 처리결과

소관위원회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부서	비고
합계		10건		
자치행정위원회 (5)	419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수정의결
	420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421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416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	원안가결
	422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3)	417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해양수산과	원안가결
	418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농어촌식품과	원안가결
	423	고창군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39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39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일정	차수	장소	의사일정
			개회
9. 28.(화) 10:00	1차	본회의장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0:30	휴회	행감위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11:00	상임위		1. 의안 심사
9. 29.(수) 10:00	휴회	현장	1. 주요사업장 방문
9. 30.(목) 10:00	휴회	현장	1. 주요사업장 방문
10. 1.(금) 10:00	휴회	현장	1. 주요사업장 방문
10. 2.(토) ~ 10. 4.(월)	휴회		자료수집 및 정리
10. 5.(화) 10:00	휴회	현장	1. 주요사업장 방문
10. 6.(수) 10:00	휴회	현장	1.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정리
10. 7.(목) 10:00	2차	본회의장	1. 의안심의 2.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폐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한반도 종전 평화선언 서명운동 동참

고창군 의회는 7월 15일 '한반도 종전평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한 메시지를 이어가고,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 1억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고창군의회 의원 10명은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종전평화 선언지지 운동에 참여하여 서명지에 서명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며 목소리를 냈다.



고창군의회 최인규의장 기고문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

고창군의회의회장 최인규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자치 30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 한정된 여건에서도 고창군의회는 8대에 걸쳐 예산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치는 지방의회의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군민과의 소통이다. 고창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과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항상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 이즈음 필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지방신문의 구독자로 군민의 한 일원으로 느낀점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신문이 존재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공유를 하며 주민역량을 한층 끌어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주역할은 공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내 정보교류나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전한 비평과 대안 제시를 통해 건강한 군민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관 확립

우리는 보통 몇몇 중앙일간지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구분하곤 한다. 때때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일부 언론사는 정치성향에 따라 편향된 기사 게재를 넘어 악의적 보도를 하고, 이는 국민 분열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중앙일간지의 일례를 보듯 지역신문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군민 여론을 가르는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일상생활에는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선택할 순간이 발생하지만, 때로는 “흑과 백” 이외의 제3을 선택할 때가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론이 특정 권력, 또는 특정인에 밀착하여 무분별한 비판이나 비난을 일삼거나,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상대를 길들여 가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편파적 보도는 다수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지역에서 환영받는 신문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주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가진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때에 비소로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품격 없는 언어, 표준이 될까 무섭다

언론 보도는 어느 누가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특정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정보는 좋은 기사가 될 수 없다. 언론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선택**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은어, 약어, 비속어 등은 상황 전달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피해야 한다. 기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독자들에게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독자 중 일부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민 눈과 귀의 역할... 지역민과 밀접한 뉴스 발굴 제공해야

지역사회는 중앙언론의 특성상 중앙언론의 지면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의 대부분은 지리적 및 행정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지역주민에 의해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 지역신문들이 지역일간지에 비해 훨씬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뉴스를 발굴하거나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여론의 중심축이고 지역민의 눈과 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신문은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매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생명력은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

주민이 외면하는 지역신문은 생명력이 길지 않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사랑받고 살아남으려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며, 주민을 대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줄 때 **그 역할과 사명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믿는다.

‘나눔으로 코로나19와 무더위 극복’

고창군, 성금품 기탁 이어져



고창군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품기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7월19일 관내 관광버스 등을 운영하는 고창고속관광(대표 류창현)과 미도투어(대표 김복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창고속관광 류창현 대표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의 도움과 고창군의 지원 등으로 버티고 있다”며 “힘들지만 모두가 나눔을 함께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고창읍 주송희씨와 밀스튜디오고창점에서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300만원 상당의 멀티 비타민을 기탁했다.

고창읍 자유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33만원을 고창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담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고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샘터자리’ 문열어

고창군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7월13일 오후 고창읍 성두마을 인근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샘터자리 개원식이 열렸다. 개원식에는 이주철 고창군부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원, 김만기 도의원, 고창군 사회복지기관과 장애인단체, 전북 장애인 직업재활협회 등이 참석했다.

샘터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활동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무용품(문서화일, 문서보존상자 등) 생산, 플라스틱 포장작업, 포장지 접기, 전자제품 조립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고창군 성인 장애인의 경우 실습과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고창군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고창읍 전봉준로 108-4)’과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6

고창군 고수면 행정복지센터, 알록달록 지역어르신 작품 전시

고창군 고수면 행정복지센터가 청사 로비에 지역 어르신이 치매예방을 위해 색칠한 알록달록한 그림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동마을 정복순(87) 할머니가 일주일동안 열심히 색칠한 그림을 생활지원사가 보고 면사무소에 연락했고, 이후 어르신의 노력과 정성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행정복지센터 로비에 전시하게 됐다.

정복순 할머니는 “집에서 소일거리로 색칠한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 마냥 신기하고, 사진 찍어서 손주들에게도 자랑해야겠다”며 활짝 웃었다.

이용철 고수면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 개원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덜고, 직업능력 강화로 자립지원”



고창군에 장애인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줄 장애인 주간보호·직업훈련시설이 개원했다. 고창읍 사회복지시설지구(고창읍 전봉준로 108-4)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고창지역에는 처음으로 생기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맞벌이 또는 기타 사정으로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 장애인가족과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게된다. 바로 옆에 자리한 고창군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사회적 및 직업적응훈련, 재활프로그램 등 훈련중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강사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비롯해, 전선가공작업, 종이가방 조립 등 중증장애인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간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숙련도를 높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취업을 돕는다.

연락처 : 주간보호시설 (063)923-9920
직업적응 (063)923-9910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미애)가 7월21일 고창지역 15개 여성단체 회원 40여명과 함께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휴가철을 맞아 방문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창해수욕장의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곳곳의 해양쓰레기를 주웠다. 또 화장실과 수도시설 주변 등 공공 시설물 정비 활동을 겸했다. 환경정화 활동 후에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아산면 계산리 680-6)을 찾아 중앙제어실과 전반적인 공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미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고창군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신림면 폭염대비 저소득층 선풍기 지원



고창군 신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성대, 김정수)가 7월19일 관내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 52세대에 선풍기를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가구별 가정방문을 통해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확인하고 함께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을 안내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홍보했다.

홍성대 위원장은 “이번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폭염을 이기고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수 신림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보증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 높을고창물 8월의 업체소개

고창명품고추 (건고추)

“고창해풍고추는 생육에 적합한 일조시간, 토양, 습도 등 천혜의 생태적 조건과 칠산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라 그 맛이 뛰어납니다.



우수한 고추만을 선별해 맑은 물로 세척한 뒤 며칠을 태양을 맞고 건조시킨 태양초입니다.”

(대표 이균영)

고창백련초영농조합 (연잎 영양밥)

“고창에서 직접 생산하는 청정백련잎만으로 생산합니다. 찹쌀, 밤, 대추, 은행, 서리태 등 무려 10가지 이상의 곡식과 견과류를 넣어 왕가의 비법으로 잘찌내 영양이 풍부하고, 향긋한 연잎 향이 스며들어 담백하고 은은한 향이 배어 일품입니다”



(대표 박윤희)

고창조은장어 (장어:초벌)

“고품격 식재료 장어! 고단백 음식으로 비타민A, 불포화지방산, 마그네슘, 철분,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활력을 더해줍니다. 특히 조은장어는 위생전실, 청결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나눠 철저한 위생관리에 신경쓴 HACCP인증의 장어포장 판매전문점입니다”



(대표 장석호)

베리팜영농조합법인 (복분자원액)

“결혼 후 고창으로 귀농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아이에게 주면 세상 이쁘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 고창의 농산물에 더욱 관심있게 됐습니다. 베리팜의 복분자원액은 씨와 과육을 껍질째 통으로 갈아 저온에서 살균해 복분자의 각종 영양성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 박재숙)

효심당(명인간장)

“2006년 고창으로 귀농해 동생과 함께 ‘강소농’을 목표로 2010년 전통장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인정받아 2018년 고창군 농식품명인에 선정됐습니다.



효심당 간장은 생간장으로 감칠맛이 뛰어나 각종 나물무침, 찌개나 국, 조림용으로 소금과 함께 간을 하면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대표 김효심)

정베리팜 (블루베리:생과)

“고창에서 해풍과 산풍이 만나 일교차가 가장 큰 선운산 뒤편 청룡산 기슭에서 자란 친환경 블루베리입니다. 래빗아이팜종은 고창이남에서만 재배 가능하며, 한여름에 수확하므로 신맛보다 단맛이 강해 더 맛있는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희진)

‘고향으로 돌아온 문화재’ 고창에서 나온 유물을 고인돌박물관에 보존할 수 있게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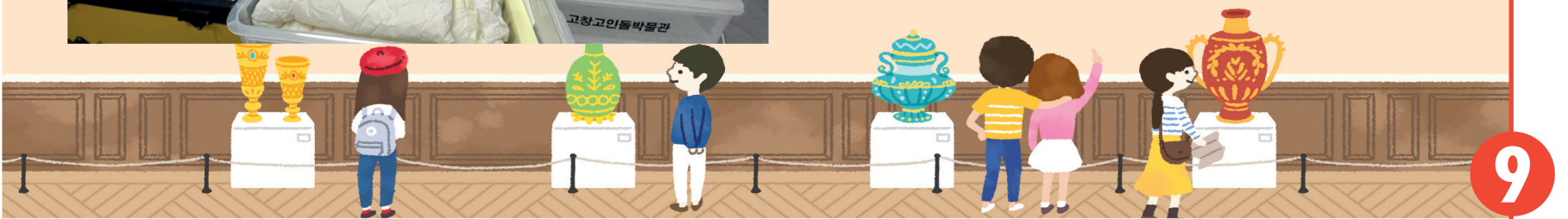


그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고창출토 문화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고창고인돌박물관은 7월21일 고창지역 발굴 유물 106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 받았다.

이번 유물 이관은 수장고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고인돌박물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기에 가능했다. 그간 고창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창을 떠나 국립전주박물관 등 타지에 보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관 유물은 지난 2018년 사적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5차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청자합, 청자 잔탁 등 106점이다.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 후 국가귀속문화재의 이관은 고창의 문화재를 직접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권리와 동시에 유물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는 책임도 뒤따른다.

향후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굴조사된 반암리 요지 발굴조사를 비롯해 고창에서 발굴되는 중요 발굴유물 등이 국가귀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별로 이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9

고창군 결혼이민자와 가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통번역서비스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말과 한국문화가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와 상담 ▲행정·사법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위기상황 발생 등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친정부모님 초청이나 비자연장, 국적취득 관련 서류 지원 등 일반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은 전주 출입국사무소에 자주 가기 힘든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다.

현재 센터에는 중국어 통번역지원사 최향자 선생님이 2009년부터 근무하고 있고, 그 역시 결혼이민자로서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단순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넘어 결혼이민자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 외에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등 직접적인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기타 언어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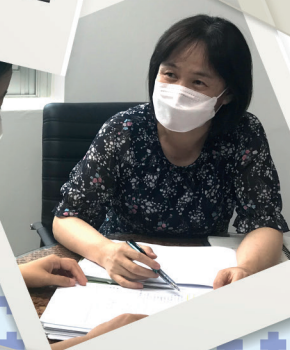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도 통번역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통번역서비스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역기관 등은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561-1366)로 신청하면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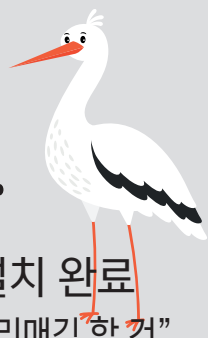
嗨

안녕!





고창, 한반도 황새의 고향으로 키운다



‘황새도시 고창’, 고창 들녘에 황새 산란할 인공 둥지탑 설치 완료
“월동기를 지나 산란기까지 머물 수 있는 여건 만들어 황새의 고향으로 자리매김 할 것”

전북 고창군 들녘에 천연기념물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인공 둥지탑이 세워졌다. 문화재청은 둥지탑 설치를 위해 울초 충남 예산군 황새공원의 김수경 박사 자문을 받아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최적지 3개소(아산면 반암리, 부안면 봉암리, 해리면 금평리)를 선정했다. 이후 13m 높이의 인공둥지를 설치했다. 고창군에선 해마다 10여마리 정도의 황새가 발견됐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사이 60여 마리가 목격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수확이 끝난 인적 드문 심원, 해리 농경지도 황새들의 먹이터가 됐다. 친환경 농업으로 농약 사용이 줄어든 결과다. 염전에 물을 끌어 오기 위한 돌담식 농수로도 황새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콘크리트가 아닌 돌담식 농수로는 다양한 수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창군수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자연번식까지 한다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며 “멸종 위기종 1급인 황새의 보호를 위해 고창군민과 울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장산 양고살재-석정온천 등산로 개통 신규 등산로 조성으로 읍내 등산로와 방장산 등산로를 연계한 산책노선 다양화

석정온천 일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양고살재-석정온천 등산로’가 개통됐다. 산책로는 진입로 구간에 흙콘크리트 100m, 목재데크길 65m, 경사 구간 보행매트 100m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 데크길 중간에 방문객이 쉬어가는 옥외용 벤치와 방향 안내를 위한 이정표를 설치해 등산객들의 산책 편의를 고려했다. 이번 등산로 개통으로 읍내권 등산로와 방장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데크길은 지면에서 약 0.5~1m를 올려 설치해 대나무 사이를 걸어가면서 산림욕으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월곡 제일아파트 인근 역사문화연계도로 구간 870m의 등산로가 신규로 개통된다. 이를 통해 제일아파트 주차장부터 방장산까지 연결돼 월곡지구 주민들의 새로운 등산 코스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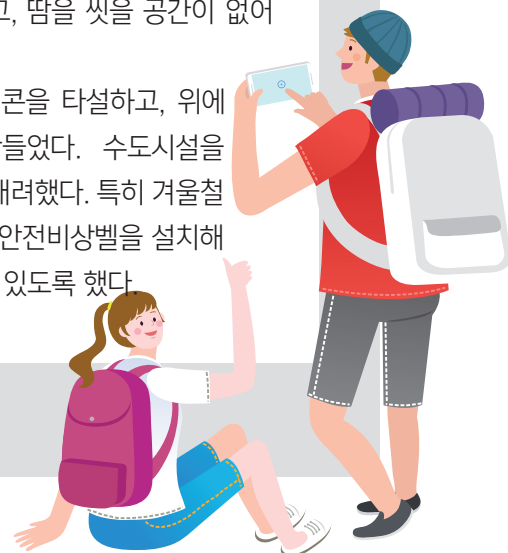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불길 산책’ 전불 등산로에 쉼터 마련



고창군 대표 산책로인 전불 등산로에 땀을 씻고 쉬어갈 쉼터가 마련됐다. 고창군 전불 등산로 입구에서 1.7km 떨어진 산책로 중간부에 ‘전불 등산로 쉼터’가 운영된다.

전불 등산로는 원만한 경사로 성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걷기 좋은 마실길로 하루 이용객 수가 300명이 넘는 고창군 대표 산책로다. 하지만 산책로(3.6km)에 햇빛과 비를 피하고, 땀을 씻을 공간이 없어 보행객들의 불편이 컸다.

전불 등산로에 기초공사로 흙을 돌아 레미콘을 타설하고, 위에 이동식 휴게시설을 얹은 간이쉼터를 만들었다. 수도시설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땀을 씻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겨울철 수도의 동파 방지를 위해 히터를 설치했고, 안전비상벨을 설치해 화장실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8월 고창인물, 강대직(姜大直, 1886~1931)



암치학교 설립 기념비

호는 이온재(而溫齋). 1886년(고종 23) 성송면 암치리에서 태어났다. 1914년 독립의군부 총사관의 칙지(勅旨)를 받고, 비밀 결사 독립운동 활동을 시작한다. 주로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군자금 모금을 맡았고, 3·1운동 직후 인근의 부자 유지들과 접선하여 군자금 동원에 앞장섰다. 또 1918년 강대직과 함께 암치보통학교를 설립했고,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할 때는 평의원으로 참여해 재단 형성에 큰 공을 세웠다.

당시 고창고등보통학교 인가가 나오지 않자 전라북도지사를 찾아가 “항일 운동도 아닌 청소년들의 교육 시설을 인가 받고자 하는 일인데 도지사가 이를 반대한다면 고창군민 대표단을 인솔하고 사이트 총독을 찾아가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목적과 이유를 규명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재가를 얻어 낸 일화가 전한다. 강대직의 가문에서 교육을 위해 지은 열운정(悅雲亭)을 다시 지어 후진 양성에 전력을 다하다가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묘소는 성송면 암치리에 있다.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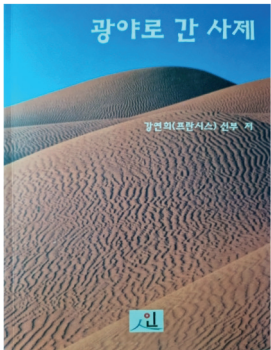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서울시니어스타워 (주)고창본부	1	청소원	시급/ 8,720원 주5일근무/08:30~17:30 (탄력적 휴무)	채용시	고창읍
2	사회적협동조합 샘터	2	단순근로 종사원 (장애인만 채용가능)	시급/ 8,720원 주5일근무/13:00~17:00 (월56시간근무)	채용시	고창읍
3	마켓레이지헤븐	1	고객관리사무원 (문서작성 홈페이지 관리등)	월급/ 200만원 (면접후조정가)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4	성산식품	1	단순근로종사원	월급/ 183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수면
5	연경전자(주)	1	제강용 열전대 및 샘플러 생산직	월급/ 210만원 주6일근무/08:00~17:30 (기숙사제공)	채용시	고수면
6	지경영농조합법인	4	배송직(2명) 생산직(2명)	월급/ 190~350만원 주6일근무/ 07:30~17:30 (격주토요일근무)	채용시	고수면
7	엄지식품	2	생산직사원 (볶음밥라인)	시급/ 8,720원 주5일근무/ 08:30~18:00 (10월개시예정)	채용시	부안면
8	농업회사법인 귀농의신(주)	1	묘목 택배배송원	시급/ 10,000원 주5일근무/근무시간협의가	채용시	아산면
9	아이보리 영농조합법인	1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월급/ 230만원(남) 주5일근무/ 08:00~17:00	채용시	성내면
10	요엘원	1	조리원 (자격증소지자)	월급/ 2,495,700원 (상여금120%) 주5일근무(06:00~18:30)	채용시	무장면
11	고창축산	3	가축사육 종사원	월급/ 230~300만원 주5일근무/ 07:00~17:30	채용시	흥덕면

구인, 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광야로 간 사제



강연희(프란시스) 신부
도서출판 / 2021
군립: 201 강64ㄱ
군립도서관 063-560-8051
성호도서관 063-561-2421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살다 가신 성인, 성현, 명인들의 말씀과 행적들을 되새겨보고, 우리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추어보면서 각자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자는 뜻에서, 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을 모아 글로 옮겨 책을 썼다고 말한다. 사람은 사람답고 선하고 욕심이 없어야 정상이고 인간적인 본질이라 말하는 저자에게 부패한 사회환경에서 변해버린 인간의 본질을 <천부의 도, 고급지성, 진리>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한암 강연희 신부
1938년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고 서울 카톨릭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원, 성공회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성공회 사제로 봉직하다가 은퇴하고, 세상과의 인연을 멀리하며 은둔생활 속에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빈손·빈마음」, 「노자 도덕경」 등이 있다.

대출사기 예방안내문

대출사기에 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수, 고창경찰서장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대출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고
대담해지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서신으로나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7월 말 기준) 고창군 관내에서만 보이스피싱 사기로
24건, 5억4000만원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저금리대출, 특별대출 등의 전화나 문자는 전부 '사기'**이므로
112,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는 대출은 절대 없습니다.

대출은 전화나 문자가 아닌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요.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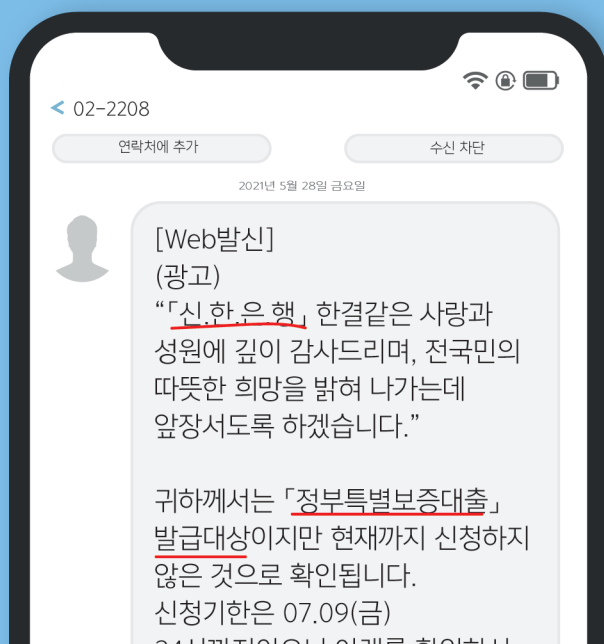
고창군과 고창경찰서는 더 이상 군민들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수, 고창경찰서장

> 최근 문자 사기 사례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기억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은행, 농협, 우체국 등) 건물 밖에서
대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자를 깎아준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 의
문자나 전화는 삭제 또는 통화종료를
눌러야합니다.



내가 빌린 대출금은 대출받은
은행에 갚아야 원칙입니다!

대출사기의심 신고 및 상담 112

